



2021 YANG YOUNG HOE

## 열여덟번째 이야기

# 평범하되 분명한 길

[ 친밀하심을 따라 ⑫ OSOM 훈련 마치며 ]



BEE Korea에는 본부에서 간사로 섬기다 선교사로 파송 받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 좀 드물었던 BEE Korea 출신 선교사님의 탄생이 곧 꽃망울을 터트릴 듯 한참 꽃봉오리를 맺고 있습니다! 꽃망울을

터뜨릴 김성주 정진영 선교사 가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BEE수:** 오썸이 awesome인줄 알았는데...ㅎ 저처럼 처음 듣는 분들에게 OSOM에 대한 설명과 훈련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A:** OSOM(Onnuri School Of Mission)은 '온누리 장기 선교사 훈련학교'로 온누리 교회의 Acts29 비전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교적 안목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인적 선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장기 선교사 후보생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31기 훈련은 16주간 동안(2.21-6.11)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성숙, 선교사의 자기 이해와 개발,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라는 큰 주제 아래 35개의 세부 세미나를 통하여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주제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설교, 선교 역사, 선교 신학, 타문화 선교, 교회 개척 등등 많이 들어봤지만 깊이 있게 생각하고 토론을 해본 적이 없는 주제들로 머리가 아팠습니다. 또한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들과 다소 상이한 개념을 전달하는 강사님들이 계셔서 혼돈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진행형으로, 시대에 따라 그 모양을 바꾸어 가는데 내 안의 선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모습이었기에 더욱 혼란이 있었습니다.

| 훈련 | Mission All to All | 증보기도



Mission All to All



**BEE수:** 훈련을 부부가 함께 받았는데 아무리 부부지만 항상 같이 하다보면 힘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A:** 비대면 훈련으로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공간이 부족하여 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장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도전이었죠. 하루가 길더라구요.ㅎ 하루 평균 11시간, 4평 정도 되는 공간에 같이 있는데 데이트할 때의 떨림과 긴장보다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게

행동하며, 아주 기본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던 대화 시간을 애써 채우는 침묵이 너무나도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BEE수:** 비대면 훈련이었군요. 그럼 식사도 직접 준비하고 육아도 하시면서 종일 훈련을 하셨다는 건데 어떻게 가능하셨어요?

**A:** 육아는 부부가 같이 도와가며 했지만 정말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아들 내외가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유튜브를 통해 요리를 배워가며 섬겨 주셨습니다. 가끔 당신이 힘드실 때도 있었지만 부부는 훈련 선교사로, 어머니는 섬기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훈련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선교 동역자로 한 팀을 이루는 귀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BEE수:** 오, 어머니의 헌신이 없이는 불가능하셨겠어요. 어머니께서 아들 내외가 선교사가 되도록 무척 기도하실 것 같아요.

**A:** 네, 물론입니다. 매일 새벽 기상과 동시에 기도 노트를 붙들고 2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계셨기에 저희 가정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당 집안에서 태어나신 어머니께서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심리적인 중압감 속에 자라셨습니다. 결혼 이후 아버지의 반대로 교회 출석은 하시지 못하고 성경책만 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2009년 천국에 가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심적 불안감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신앙이 성장하셨습니다. 현재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시며, 기회가 될 때마다 무당 집안의 영향을 받고 자란 이모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BEE수:** 이왕 보따리를 풀었으니 두 분의 신앙 이야기도 좀 해 주시지요~

**A:** 저는 25살 때 미국 이민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도와 주보를 만들며 예배를 준비하고, 성경통독집회에 따라다니며 신앙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양재 온누리 청년부(J4U)에 등록했지만, 몇 년간의 신앙적 방향과 육체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2016년 온누리 교회에 정착 후, 공동체 순예배를 통해 신앙적 안정을 찾았고 아내와 결혼하며 꿈꾸었던 선교적인 삶의 비전을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BEE에서 간사로 섬기게 되면서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BEE수:** 그럼, 선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미 갖고 BEE 선교단체에 오신 것이군요?

**A:** 선교사를 후원하며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게 문제였죠. 새우양식의 붐을 쫓아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통해 돈도 벌고, 자리가 잡히면 기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허리를 치셨고 몸뚱이 하나 의지하던 시선을 온통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셨죠. 제 부족한 믿음 가운데 말씀의 씨앗부터 다시 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점이 BEE였습니다.

**BEE수:** BEE 간사로서 일하시면서 느끼고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후배 간사님들께 해 주고 싶은 조언은?

**A:** 처음에 선교단체가 이런 곳인가 하는 의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식사 준비나 청소를 직접 해야 했으며 가정보다 손이 더 많이 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BEE를 통해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한 간사 생활은 오히려 자꾸 소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깨끗하게 할까요?’ 사실은 마음 한 켠으로는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집보다 더 깨끗이 해라. 내가 너를 지금 이곳에 둔 이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론 내 집같이 BEE를 섬기기로 작정하였습니다. BEE는 제게 하나님께서 섬김과 순종의 훈련 장소이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도록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BEE수:** 정진영 예비 선교사님! 꿈꾸는 선교사의 삶, 진정 하고 싶은 선교가 무엇인지요?

**A:** 선교사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는 선교사. 그 특별한 사람이 바로 나! 라는 생각을 했지요. 지금은 선교사의 삶이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한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기에 내 모든 삶은 특별하지만, 하나님 앞에 ‘선교사’라는 것은 당연하고 평범한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하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찬양받으시는, 당연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성령이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BEE수:** 7세인 은찬이에게도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의 자녀로서 이번 훈련 과정을 통해 무엇이 달라지고 있나요?

**A:** 훈련기간 동안 자녀학교 팀의 수고와 섬김으로 자신이 ‘꼬마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교사라는 개념은 잘 알지 못합니다. OSOM 훈련



자신이 ‘꼬마 선교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선교사라는 개념은 잘 알지 못합니다. OSOM 훈련

을 통해 은찬이도 꼬마 선교사로 준비되는 시간을 갖고 우리 가정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간접적으로 느껴보기를 원하였는데, 비대면의 상황으로 인해 충분히 느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깊어지고, 형과 동생 사이에서 나를 사회생활의 기반을 잘 닦아 왔기에 이들을 두고 가는 게 싫다고 아직 투정을 많이 부립니다. 은찬이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기를, 선교하는 가정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마음이 어렵지 않기를, 우리 부부가 그렇게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 정주영 편집: 최선]

**꼭 그것이 알고 싶다** 선교지  Indonesia



**[전통 악기- 앙글롱 (Angklung)]**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의 순다족 지역의 악기로 대나무 프레임에 다양한 수의 대나무 통을 부착하여 만든 악기이다. 서양 핸드벨과 유사한 옥타브로, 왕의 영접 의식, 벼추수 감사제, 할례의식, 특별한 행사 때 일반적으로 연주되었다. 순다왕국 시기에는 전쟁터에서 전투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연주되었다 하여 동인도회사가 점령하던 시기에는 어린이들을 제외하고는 일상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서부 자바와 반텐에 있는 순다족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유네스코는 공식적으로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의 걸작으로 인정하였다.(2010.11.18)

BEE 소식

1. 2021년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함을 통해 더욱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지고 이웃과도 그 친밀함을 나누는 한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17:21).”

2. 2021 BEE Korea 여름방학 특강 개설! 말씀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

[전도와 제자 양육2, 고린도전서, 모세오경, 하나님의 말씀 전달]

3. 7월 3일(토) 6:30, 'All & One 2021!' BEE Korea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1년 7월 3일 (오전 6시 30분 시작) 서빙고 은누리교회 비전홀

BEE Korea